

제 70 호

사순절 제 5 주일

1974. 3. 31

# 숲정이

발행인 김 영 일  
 인쇄인 함 승 천  
 주 간 조 성 호  
 편 집 한 상 갑

### 【목 상】

##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

한 상 갑



성년인 지금, 우리는 <평화의 기도>를 자주 바칩니다. -미움이 있는 곳에는 사랑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사랑받기 보다는 사랑하게 하여주소서- 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기도의 내용과는 너무나 다른 행동을 곧잘 합니다.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게 바로 인간 본연의 그것일런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복음은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에게 줍니다.

두려움과 부끄러움에 가슴이 미어질것 같은 간음하다 잡힌 여인에게는 "나도 당신을 단죄하지 않겠소. 그러니 돌아가시오. 그리고 이제부터 다시는 죄짓지 마시오" 하신 이 크나큰 사랑.

예수께 올라가미를 씌우려다가 슬그머니 사라져버린 율법 학자와 바리사이와 사람들에게는 "당신들중에 누구든지 죄없는 사람이 있으면 먼저 저여자를 돌로 치시오" 하신 준엄하기 그지 없는 이 가르침에서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우리는 보통으로 남의 잘못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기 보다는 물고늘어지기를 좋아합니다. 우리에게 잘못된 이를 우리가 용서하듯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라고 입으로는 빌면서도 남을 용서하는 일에는 인색합니다. 아니 어쩌면 더욱 오래오래 미워하는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면서도 자기의 그것은 어떻게든 부정을 하고, 합리화를 하며, 어쩔수 없었다는 변명을 늘어 놓습니다. 문제는 자기의 잘못을 솔직히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지 않는 점입니다. 소위 지체가 높은 분일수록 더욱 그러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 자연히 공동체 안에서의 일치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가정, 직장, 단체, 국가 그 어느 곳에서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평화입니다. 이 평화-마음의 평화, 가정의 평화, 직장의 평화, 교회의 평화,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 모두는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며 사랑해야 하겠습니다. 받기보다는 주어야 하겠습니다.

당신을 미워하고 단죄한 "그들은 다 어디있소?" 하고 주께서 물으실 때, 이제 우리들안에는 미워하고 단죄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하고 대답할 수 있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정말로 이제는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

<전주 해성 중·고 교사>

### \* 이주일의 미사 \*

#### (1) 개회식

□**입당송** 하느님 나의 울음을 판단하소서. 매정한 백성을 거스려 내 송사를 두둔하시고 악하고 간사한 자에게서 나를 구하소서. 하느님 당신은 내 굳센 힘이시요이다.

#### (2) 말씀의 전례

□**제 1독서** (이사 43:16-21, 경향잡지 3월호 P. 54 나는 새로운 것을 이룩하고 내 백성에게 마실 물을 주리라.

□**창세송** ◎주께서 과연 우리에게 큰 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못견디게 기뻐했나이다.

주여 사로잡힌 우리 겨레를 남녘땅 시냇물처럼 돌려주소서. 눈물로 씨뿌리던 사람들이 기쁨으로 곡식을 거두리이다. ◎

**제 2독서** (골리비 3:8-14, 성서 P453)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손실로 여겼다.

□**복음 전 노래** 나는 인자하고 자비로우니, 너희는 이제 마음을 다하여 내게 돌아오라.

□**복음** (요한 8:1-11, 성서 P. 223)

너희 중에서 죄없는 자 먼저 돌을 던지라.

#### □ 신자들의 기도

1. 주여, 우리들은 자신의 결정을 결손되게 살피 보기 보다는 남의 흠잡기를 더 좋아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없는 자 먼저 돌을 던지라는 당신의 가르침을 따르게 하소서. ◎주여...

2. 위로자이신 주여,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비오니, 그들로 하여금 실망하지 않고 살게 하소서. ◎

3. 영원한 대사제이신 주여, 당신의 사제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벌리고 있는 사제 양성 후원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 주소서. ◎

+ 주여 비오니, 우리로 하여금 이해받기 보다는 서로 이해하여 주어 당신의 평화가 우리안에 가득하게 하소서. 우리 주...◎아멘

#### (3) 성찬의 전례

봉헌

성찬식

□**영성체송** 나를 단죄한 사람은 아무도 없느냐, 주님 아무도 없나이다.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으리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 (4) 폐회식

### \* 숲정이 산책 \*



금육재와 단식재를 잘지킵시다. — 사순절 —

□신앙인의 상식□

□본당 코우너□



### 주일미사 대송(代誦)

박진량신부

주일미사는 신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거룩한 우정을 나누며, 각자의 마음과 생활을 주님의 그것과 합하여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의 예물로 바치는 거룩한 제사이다. 이 주일미사가 말로 신자생활에 있어서 지난 한주간 아름다운 휘날레 (finale : 끝맺음)요, 보람을 느끼는 때이며, 다음 주간의 더 풍요한 결실을 약속하는 축복의 잔치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은 이 주일미사 참예에 대하여 가장 큰 즐거움과 영광을 느끼며, 하느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할 신성한 의무라고 믿고 있다.

따라서, 어쩔수 없는 사정으로 말미암아 주일미사에 참예할 수 없는 신자들은 다른 기도나 전례행위로 이를 대신하고자 했다. 여기서 생겨난 것이 바로 주일미사 대송(代誦)이다.

그러면 이 주일미사 대송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전통적으로 바쳐오던 공식적인 대송은 공소예절 (가톨릭기도서 108P에 있음)이다. 이것은 본당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살고 있는 신자들이 교통이 불편하여 성당에 까지 올수도 없고 신부가 매주일 찾아가기도 어려울 때 그 근처 신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말씀의 전례와 감사의 기도**를 바치는 예절이다. 달리 말하면 「성찬기도」 없는 미사이다.

공소예절 이외에도 주일미사 대송으로 바치는 기도가 있다. 글자를 읽기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분들은 묵주기도나 주의기도 33번으로 대신할수도 있다. 그러나 주의기도를 바치는 경우에, 꼭 33번을 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대개 그 정도의 시간과 정성을 드려야 한다는 뜻으로 정해진 숫자라고 생각한다.

이 외에도 이와 비슷한 다른 기도와 예절 행위로 대신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예컨대 성경을 30분정도 정성드려 읽으면서 화살기도를 바치는 것은 훌륭한 주일미사 대송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어떤것으로 대송을 하든지 간에 **배놓지 못할 중요한 점**은 본당에서 드리는 미사와 합심하는 뜻과 또 마음속으로라도 영성체 하는 뜻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해서, 모든 신자들을 비록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주일미사 참예를 못하는 경우라도 주일의 뜻과 의무를 완수한다. (가톨릭센타 판장)



### 죽어도 좋아요.

지난 3월19일 노송동 성당 신축 기공식이 있었다. 주교님을 비롯한 여러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들의 즐거움 가운데 기공식을 마친 함승천 본당신부, 조해형 사도회장, 김정생 신축위원장과 모든 교우들은 그저 한결같이 감사하고 있었다.

그런데, 도시계획에 의하여 두쪽이 나게 되어 있는 노송성당의 신축공사에는 두가지의 큰 문제를 안고 있다. 그 하나는 **돈**이요, 또 하나는 **땅**이다. 예상되는 총공사비가 5천만원인데, 현재까지 확보되어 있는 것은 겨우 2천만원이다.

또 하나의 문제인 대지도 그렇다. 기왕에 성당을 신축하는 바에야 현재 240명 수용능력이 겨우 30명만 증가되는 일도 노송교우들에게는 꽤 고민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문제가 조금만 부드럽게 풀리면 37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성당 신축이 가능하다고 한다.

성당을 짓는 것이 문제이지, 본인 하나 죽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함신부님의 말씀을 뒤로 하고 나오는 탐방자의 발걸음이 무겁기만 했다. <갑>

### \* 고마운 뜻 \*

- 노송동 교우와 시내 교우들 1,004,020원
- 노송동 교우들의 성미 153말 (깃가 약 23만원)
- 노선옥 여사 성종 (30만원 완납, 망부(亡夫) 유강준 씨의 이름으로)
- 노선옥 여사 14처 (25만원)
- 이태영씨 석돌제대 (30만원)
- 오정옥씨 방지거상 (20만원)
- 이름을 밝히지 않으신분 감실 (15만원)
- " 성모상 (20만원)
- 로마 전교회 1,000,000원
- 프란치스코 수도회 멕시코 관구 20,000불
- 고요셉 신부 10,000불
- 함승천 신부 10,000불

### \*교우들의 건강 관리 센터\*

### 영진약국

-조제약 전문

김을태(베드로)

☎육교역 중앙 시장통 (전화 ④4577)

### \* 교형 여러분의 집 \*

### 스타 사진관

장남수(바오로)

● 오거리동 동아여과 입 (전화 ④6094)

### 귀가 잘 들리지 않은 분에게 희소식!

- ◆ 보청기(補聽器) 입하
- ◆ 의로기계 ◆ 학교실험기계

### 동남의료과학기계상사

전화 ② 4367

(병원-의과대학 중간)

양 지 폭

4 월 바 보

김 길 수



세상이 복잡하다 보니 모두가 영리하지 않고는 살아 갈 재주가 없게 됐다. 성실성과 소박성보다 권모술수의 잔재주가 생활철학이 되었고 약삭빠른 타산도덕(打算道德)이 생활의 전체를 지배하게 되었다. 빛의 아들이 어둠의 자식들앞에서 진전궁궁하고 있는 세태이고 보면 악자(악화)가 선자(善者)양화를 구추하는 인간의 그레샴 법칙이 속출함은 당연지사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과는 전혀 다른 바보스런 일생을 보낸 사람들이 있다. 개인의 영화와 권좌의 이익을 털어버린 성현군자들이다. 그라스도의 탄생과 생활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은 바보만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이었다. 그러나 이 바보의 일생이 위대한 사랑을 낳았고 승리와 영광의 생애였음을 부인할 자는 아무도 없다. 제자들에게 배신당할 줄 알면서도 사랑했고 자기를 처절한 민중의 아픈가슴을 어루만져 주었다. 그의 이 바보같은 사랑의 위업은 썩고 병든 인류의 정신속에 흐르는 양심의 맑은 청량제로서 필요, 충분한 수술효과를 발휘했다. 대성(大聖)은 대우(大愚)와 같다는 말이 있다. 왕위와 권력과 향락등 부귀영화를 헛신짜 버리듯 내던진 석존(釋尊)의 설산수도가 바보의 행각이었으며 「사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바로 사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외치며 죽은 소크라테스의 독배가 바로 바보들만이 저지룰수 있는 마음의 용기였다.

오늘 우리들의 현실은 이(利)와 욕(慾)의 정밀거계로 약삭빠른 계산의 시비를 논하며 사는 생활이다. 눈뜨고 코베어가는 살풍경이 생활 깊숙이 파고들어 양심은 마비되고 타락했다. 모두가 너무 영리한 탓이다. 한치도 양보할 수 없는 사람들끼리 지혜의 대결을 하고 있으니 쉽게 해결 될리가 없다. 남을 사랑하고 이해한다는 것은 손해보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바쁜 세상에 개인의 일요일을 봉헌한다는 것은 개인의 사업과 취미 생활에 마이너스가 된다고 생각한다. 자기를 위해서는 영리한 사람도 남과 교회를 위해서는 인색한 「사일록」이 된다.

내일 1일은 만우절, 이날 하루만이라도 바보가 되어 남을 위해 손해를 보자. 영리한 마음을 텅빈 마음으로 가난해 보자. 이날 간첩이나 도둑의 출현을 신고하기에 앞서 바보들이 벼거지에서 흉수를 이루고 있다고 112에 신고하자. 그리하여 참된 자아의 몫을 상금으로 차지하자

(가톨릭서보 기자)

요심이

(37) 김炳斗



Comic strip panels with dialogue. Panel 1: 레이오 마리에란 무슨뜻이냐? / 글세 모르겠는걸 요심이는알거야. Panel 2: 만물박사 요심아 레이오 마리에란? / 그건 성모마리아가 듣던 라디오란 말이다 에헴. Panel 3: 그것이 아니고 전교하는 단테로서 마리아 군단이라는 뜻이야. / 창피하게 되었구나. Panel 4: 그때 성모마리아가 군당장이니까 계급이 중장이었지.

가톨릭 센터 프로그램 (관장 신부 박진량, 상임간사 안지은, 전화 03498)

- 매주 일요일 오후 3시...이삭회 매주 월요일 7시 반...메아리합창단
// 월, 화, 목요일 7시 반...일본어 교실 영어교실 매주 월~목 7시
// 목요일 8시... "목요일 밤에" (남녀 젊은이들의 대화)
// 금요일 8시...레크레이션 (주최; 가톨릭 센터와 J.O.C.)
시민상담실-건강, 여성, 외국, 교육, 결혼, 신앙 등 매주 월~토 밤 8~9시

현대인의 필수 조건은 양서를 골라서 읽는 것이다. (T. 2~7398)
\*성성 바오로 서원

\* 이주간의 성경

- 1(월) 독서(다니 13:1-9, 15-17, 19-30, 33-62)
복음(요한 8:1-11, 성서 P. 223)
2(화) 독서(민수 21:4-9)
복음(요한 8:21-30, 성서 P. 224)
3(수) 독서(다니 3:14-20, 91-92, 95)
복음(요한 8:31-42, 성서 P. 226)
4(목) 성 이시도로 주교하사

- 독서(창세기 17:3-9)
복음(요한 8:51-59, 성서 P. 227)
5(금) 성 빈첸시오 페레르
독서(예레 20:10-13)
복음(요한 10:31-42, 성서 P. 232)
6(토) 독서(예제 37:21-28)
복음(요한 11:45-56, 성서 P. 236)

◎ 닭·염소·야생동물 일체 ◎

화랑상회

<교우들에 특별 봉사>

최병수(안당)

남부시장 닭전

전화 06C91(교환) 108

제일 비싼 독일의 3년 연속 V.A. 번식 성적 1위인 관토호의 직자

렉스 V 래토프



仔犬분양

(입한전 애견)

문의처: 전화 07692(진부동 어은골)

조흥(사자표)페인트 대리점 (직철 전문)

대 동 페인트 물상사 } 고급벽지 비닐장판 하드보드 각종페인트

● 동문 사거리 전화 05986 임정원 (도민고)

제4지구 6개 본당 소식

1. 성프란치스코 재속 전주 방지거 형제회  
4월 6일(토) 오전 10시 : 심의회, 오후 1시 : 수련자 교육 오후 2시반 : 월례회
2. L.M아치에스행사 (오늘 오후 1시30분 : 전동)  
전동, 북자, 서학동의 본당인 전단원 및 협조단원들은 한분도 빠짐없이 이 사열식에 참여합니다.
3. 전주 교구 가톨릭 중·고등학생 연합회 정기총회  
(오늘 오후 3시 : 가톨릭 센터 강당)가 성당 회장 및 임원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4. 전북대학교 가톨릭 학생 신입회원 환영회  
(지난 3월16일 오후 7-10시까지 : 가톨릭 센터 강당)신입회원에게 가톨릭 학생회(안내와 환영회를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특히 가톨릭센터의 보조(5,000)에 감사드립니다.
5. 중·고등 학생 성년 세미나(다음 주일 오후 2시-5시)  
①강사: 이정환 신부, 문정현 신부 ②진자나 예비자, 누구든지 참가할수 있습니다. 많은 참석바람

[소]

[식]

(중앙)

전화 ②2651 ②3874  
주임 신부 안복진  
보좌 신부 박창식  
사도 회장 이복석

1. 사도회 월례회 (다음 공식 미사후)
2. 구역장님에게 (오늘중 성사표를 받아 가십시오)
3. 불 판공 성사 (4월 5일<금> 오후 7시반)  
전 신자에게 성사주실 : 성사후에 미사 있음.
4. 성지(예수 수난) 주일 (다음주일 : 성지가지 지참)  
오전 9시반 : 성모상 앞에 집합 행렬  
오전 10시 : 입당식과 미사
5. 성 주간 행사 (다음 주일 발표)  
빠짐없는 참석과 예수님의 수난을 묵상기도하며  
즐거운 부활을 맞이합니다.
6. 성모 부녀회 월례회 (5<금> : 어머니 미사후)
7. L. M 푸리아 월례회 연기 (4월 20일<토> : 아치에스행사)
8. 본당 운영에 대한 협의회 (다음주 저녁미사후 : 강당)  
당면한 문제에 대해 갖고져 하오니 많은 참석 바람.
9. 전자 오르겐 구입 특별헌금 (적극적인 협조 요망)
10. 교무금 납부  
불 판공을 기해 3분의 2를 납부합니다.  
지난 주일 봉헌금 43,163원, 감사합니다.

(북자)

전화 ②5238  
주임 신부 오기순  
사도 회장 조성호

1. 교무금 납부 요망 (부활전에)
2. 미사 시간 변경 (4월1일<월>)  
저녁미사 : 7시-7시30분으로
3. 유아세례 (4월 2일<화> : 오전 10시)
4. 사제 양성 후원 기금 (적극 협조 바람)
5. 북자 부녀회 월례회 (오늘 공식 미사후)
6. L. M 아치에스 행사 (오늘 오후 2시 : 전동)  
전 단원과 협조단원의 참석 바람.
7. 조 미카엘(중열) 선종 : (지난 26일 오전 5시)  
많은 기도와 협조 감사합니다.  
지난주 미사 참례자수 10시 372명 7시 117명  
합계 489명  
지난주 성미 2말 2되 누계 267말 3되  
지난 주일 봉헌금 13,125원, 감사합니다.

(서학동)

전화 ②2276  
주임 신부 김영일  
사도 회장 이거영

1. 사도회 월례회 (다음주일 저녁 미사후)
2. 미사시간 변경 (4월 1일부터)  
아침 : 6시30분으로 변경
3. 아침 : 미사 불린 (1<월>-5<금>까지)  
신내 6개 본당 불 판공과 성년행사 관계로 합니다.
4. L. M 아치에스 행사 (31일 오후 2시 : 전동)  
단원과 협조단원은 빠짐없이 참석 바랍니다.
5. 본당 판공 (9일<화> 밤 7시반)  
작년가을 판공과 같이 여러 신부님들께서 주십니다  
성사표를 받아가세요.  
5<금> : 1-4반 6<토> : 5-8반 7<일> : 9-12반  
8<월> : 13-16반 9<화> : 17-18 삼천동, 기타지역  
지난 주일 봉헌금 11,562원, 감사합니다.

(노송동)

전화 ②7032  
주임 신부 함승천  
사도 회장 조해형

1. 사도회 월례회 (오늘 공식 미사후)
2. 프란치스코 재속 형제회 (다음 주일로 연기)
3. 본당 피정 (4<목>오후 7시-5<금> 오후 6시까지)  
공소 교우들과 회장님, 사도회 임원 전원 참석하고  
본당 교우들께서 많은 참석 바랍니다.
4. 4 지구 성년 순회 불 판공성사 (2<화> : 오후 2시)  
본당 교우들께서는 빠짐없이 적극 참여합니다.
5. 노송성당 신축에 협조해 주신분, 감사합니다.  
3만원 : 신우라사(김병구), 2만2천원 : 북자교우 일동  
단원 : 김인순, 3천원 : 허용자(혜레나), 재영자  
5백원 : 왕정공소(윤태희)  
지난 주일 신축기금 66,520원 누계 1,076,922원  
지난 주일 신축성미 5말 누계 153말 4되  
지난 주일 봉헌금 13,660원, 감사합니다.

(전동)

전화 ②3222  
주임 신부 범석규  
사도 회장 송재진

1. 미사시간 변경  
아침 : 5시반, 저녁 7시반
2. 예비자 교리(교리실)  
매일 : 오후 3시 평일 : 오후 8시  
주일 : 10시 미사후, 저녁미사후
3. 프란치스코 재속 3회 (31일 : 11시(전동))
4. L. M 아치에스 행사 (31일 오후 2시 : 전동)  
1시반까지 단원과 협조단원은 모두 집합 요망.
5. 학생회 소식(CELL 강습회) : 6<토> 오후 3시반  
장소 : 유치원 강당 주최 : 전동 가톨릭 학생회
6. 고등부 정기총회(오늘 공식 미사후 : 유치원 2층)  
학생들의 많은 참석 요망.
7. 불 판공 및 제4지구 합동 성년 행사 (4일<목>)  
교백성사와 미사는 작년과 같습니다.  
교무금 납부 요망.  
성사표를 받아가세요 (오전 9-오후 6시)  
1<일> : 전동, 동교동, 서교동 2<화> : 동서학동  
기타동, 3<수> : 풍남동, 남노송동, 중앙동,  
경원동, 다가동
8. 주일 학교 일일교장 (이 엘리자벳 <부녀부장님>)
9. 3<수> 아침미사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지난 주일 봉헌금 : 40,420원, 감사합니다.

(덕진)

전화 ②8082  
주임 신부 김종택  
사도 회장 김종환

1. 본당 성년 행사 (4월2일<화>)  
성년 행사를 맞이하여 몸과 마음을 다하여 임합니다
2. 푸른 양지회 월례회 (오늘 공식 미사후)  
회원들의 전원 참석 바람.
3. 애령회 심미운동 (정성껏 참여합니다)  
지난 주 애령회 성미 3되 누계 6되  
좀더 협조합니다.  
지난 주일 봉헌금 6,242원, 감사합니다.